

한국인 건선 환자의 국소치료제 선호도 조사 연구

김미리¹·강태원¹·유 옥¹·서성준²·김태윤³·이중훈⁴·김광중⁵·김상태⁶·윤재일⁷

연세대학교¹, 중앙대학교², 가톨릭대학교³, 충남대학교⁴, 한림대학교⁵, 고신대학교⁶, 서울대학교⁷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A Clinical Survey of Korean Psoriasis Patients for Their Preference of Topical Treatments

Mi Ri Kim, M.D.¹, Tae Won Kang, M.D.¹, Wook Lew, M.D.¹, Seong Jun Seo, M.D.², Tae Yoon Kim, M.D.³, Jeung Hoon Lee, M.D.⁴, Kwang Joong Kim, M.D.⁵, Sang Tae Kim, M.D.⁶, Jai Il Yoon, M.D.⁷

Department of Dermatology, ¹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²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³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⁴School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⁵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Anyang; ⁶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⁷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Various topical medications are still mainstream in the management of psoriasis. Patient's preference of topical medications might be great influence on the successful treatment of psoriasis.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eference of Korean psoriasis patients for topical anti-psoriatic treatments(especially topical corticosteroids and topical vitamin D₃ derivatives) in order to compare their merits and demerits in aspect of patient's view point.

Methods: The study uses the data collected by means of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 discuss 414 cases of Korean psoriasis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topical steroids and topical vitamin D₃ derivatives from 7 centers began in January 2005 and ended in June 2006. Male patients were 240(58%), and female patients were 174(42%). Patients of 11 to 70 years of age were eligible for this study.

Results: Longer therapeutic period was the main limit in the treatment of psoriasis regardless of medication type,

and lower therapeutic effect was the following limit(each 54.8% and 23.2%). Among the various topical medications, topical vitamin D₃ derivatives are more preferred than topical corticosteroids(62% vs 30.2%). In terms of preference, patients selected topical corticosteroids firstly for its rapid onset of the therapeutic effect. And lower side effects was first choice in the preference of the topical vitamin D₃ derivatives. Lotion(49%) and cream(36.2%) type formulations are more favored by patients.

Conclusion: The patients answered that both the topical Vitamin D₃ derivatives and the topical steroids were equally effective, but the topical Vitamin D₃ derivatives were more favored especially for their lower side effects. And treatment vehicle formulation is another important factor to advance patient's compliance.

Key Words: Psoriasis, Topical medication, Steroids, Vitamin D₃ derivatives, Preference

서론

건선은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으로 국소치료, 광선치료, 전신 약물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국소 약물치료제는 경증 내지 중등도의 건선에 일차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타 치료법과 병합요법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건선 국소치료제의 종류로는 스테로이드, 비타민 D₃유도체, 면역억제제, 안스라린, 타르 등이 있다. 이들 약물의 처방은 환자의 전신 상태, 약물의 치료 효과, 약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자들의 선호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저자들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총 414명의 건선 국소치료제 선호도에 관한 설문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6개월 동안 7개 의과

교신저자: 유 옥
135-7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영동세브란스병원 피부과
Tel: 02) 2019-3363, Fax: 02) 3463-6136
E-mail: wlewderm@yuhs.ac

* 본 연구는 대한건선학회와 동화약품공업(주)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본 논문의 요지는 2006년 제58차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와 2007년 제16차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ology 학회에서 발표하였음.

Table 1. Questionnaire for patients with psoriasis

No. Questionnaire	
1. 건선 국소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 효과가 적음 2) 치료 기간이 많이 걸림 3) 비용이 많이 들 4) 부작용이 큼 5) 도포가 불편함
2. 건선 국소치료제 중 선호하는 제제는?	1) 스테로이드(부신피질 호르몬제) 2) 비타민 D유도체(다이보넥스, 실키스, 본알파) 3) 면역억제제(프로토펙, 엘리텔) 4) 안스랄린(안스린) 5) 타르
2-1. 위의 제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1) 빠른효과 2) 부작용이 적음 3) 재발률이 적음 4) 도포감이 좋음(자극이 적음, 끈적임이 없음, 보습효과가 지속적임) 5) 기타
3. 건선의 국소치료제 중 선호하는 제형은?	1) 오인트 2) 크림 3) 젤 4) 로션 • 사용하시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비타민 D유도체가 연고형태인 경우 인지 용액 형태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답해주세요(둘다에 해당되면 모두 체크하고, 선호 종류가 다르면 각각에 번호를 기입하세요).
4. 부신피질 호르몬제(연고_용액_)를 선호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1) 빠른 효과 2) 부작용이 적음 3) 재발률이 적음 4) 도포감이 좋음(자극이 적음, 끈적임이 없음, 보습효과가 지속적임) 5) 기타
5. 부신피질 호르몬제(연고_용액_)를 싫어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1) 효과 없음 2) 부작용이 큼 3) 재발률이 큼 4) 도포감이 나쁨(자극적임, 끈적임, 보습효과가 없음) 5) 기타
6. 비타민 D유도체(다이보넥스 등) (연고_용액_)를 선호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1) 빠른 효과 2) 부작용이 적음 3) 재발률이 적음 4) 도포감이 좋음(자극이 적음, 끈적임이 없음, 보습효과가 지속적임) 5) 기타
7. 비타민 D유도체(다이보넥스 등) (연고_용액_)를 싫어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1) 효과 없음 2) 부작용이 큼 3) 재발률이 큼 4) 도포감이 나쁨(자극적임, 끈적임, 보습효과가 없음) 5) 기타
8. 부신피질 호르몬제(연고_용액_)가 건선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1) 네 2) 아니오
9. 비타민 D유도체(다이보넥스 등) (연고_용액_)가 건선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1) 네 2) 아니오
10. 부신피질 호르몬제(연고_용액_)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사용을 기피하는지?	1) 네 2) 아니오
11. 비타민 D유도체(다이보넥스 등)(연고_용액_)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로 인하여 사용을 기피하는지?	1) 네 2) 아니오

대학 부속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 외래에 내원한 건선 환자들 중 건선 국소치료제 설문에 응답한 총 4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지(Table 1)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건선 국소치료제의 문제점, 선호하는 제제, 선호하는 이유, 선호하는 제형, 싫어하는 제제 및 싫어하는 이유 등 환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건선 국소치료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결 과

1. 총 대상 환자의 분포

총 414명의 응답 환자 중 성별분포는 남자는 240명, 여

자는 174명 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1세부터 68세까지로 평균 41.3세였다. 건선의 임상적 분류를 보면 414명 중 389명은 판상 건선이었으며, 건선의 이환기간은 최소 0.5년부터 최대 30년으로 평균 14.5년이었다(Table 2).

2. 설문결과

건선 국소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치료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대답한 경우가 227명(54.8%), 효과가 적다고 답한 경우가 96명(23.2%)으로 나타났다(Fig. 1).

건선 국소치료제 중 선호하는 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타민 D유도체를 답한 경우가 257명(62%)로 가장 높았으며 스테로이드 제제를 답한 경우가 125명(30.2%), 면역억제제가 30명(7.0%) 등으로 나타났

다(Fig. 2).

비타민 D유도체를 선호 제제로 선택한 군에서 그 이유

Table 2. Demographic data of 414 patients with psoriasis

Patient's characteristics	
Sex(number)	
Male	240
Female	174
Age(year)	
Mean	41.3
Range	21 - 68
Clinical type(number)	
Plaque	389
Guttate	25
Duration(year)	
Mean	0.5 - 30
Range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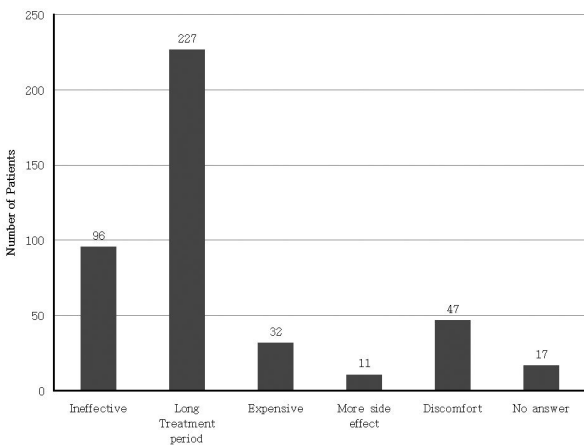


Fig. 1. The problem of topical medication for psori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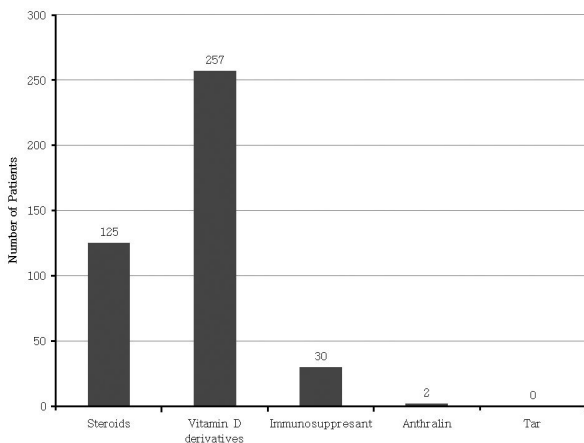


Fig. 2. The most preferable topical medication for psoriasis.

로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134명(52.1%), 도포감이 좋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62명(24.3%), 빠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31명(12.1%)이었다(Fig. 3). 비타민 D유도체를 싫어한다고 답한 군에서는 그 이유로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58명(46.4%)로 가장 많았으며, 도포감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45명(36%)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제제를 선호 제제로 선택한 군에서는 그 이유로 빠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63명(50.4%)로 가장 많았으며, 도포감이 좋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30명(24%), 재발률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21명(16.8%)이었다(Fig. 4).

스테로이드제제를 싫어한다고 답한 군에서는 그 이유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124명(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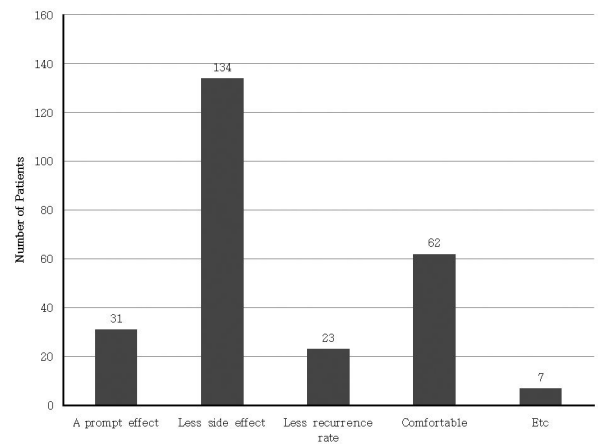


Fig. 3. The reason for vitamin D derivative p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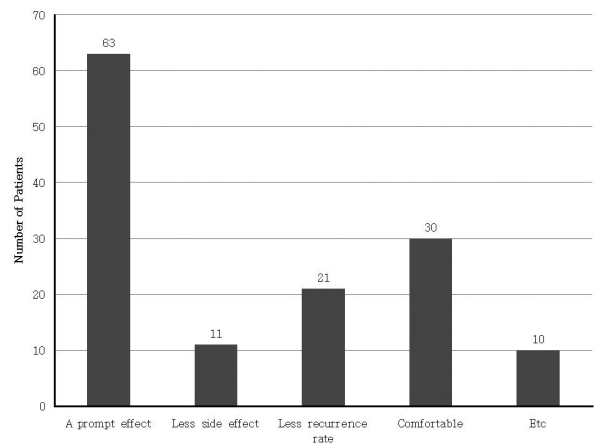


Fig. 4. The reason for topical steroid p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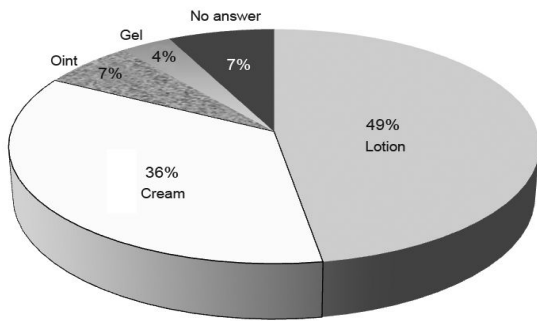


Fig. 5. Type of form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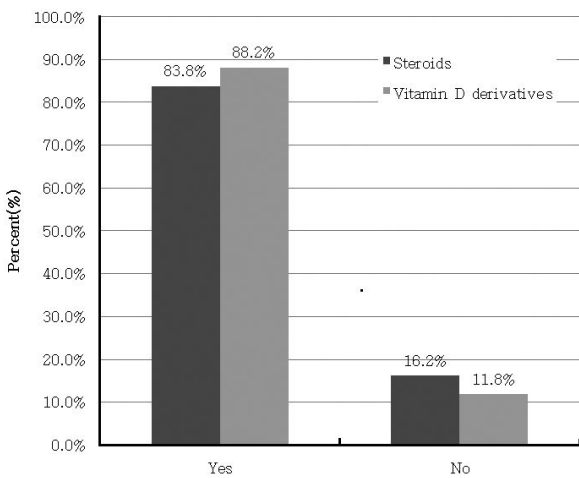


Fig. 6. Effectiveness.

로 가장 많았으며, 도포감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89명(34.6%)으로 나타났다.

국소치료제의 제형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로션(49%), 크림(36.2%), 오인트(7%), 젤(4%)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비타민 D유도체가 건선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365명(88.2%)이었으며, 스테로이드제제가 건선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347명(83.8%)으로 나타났다(Fig. 6).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용 기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타민 D유도체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로 인하여 사용을 기피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12%였으며, 스테로이드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용을 기피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72%로 나타났다(Fig. 7).

고 찰

최근 건선의 발병기전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진전과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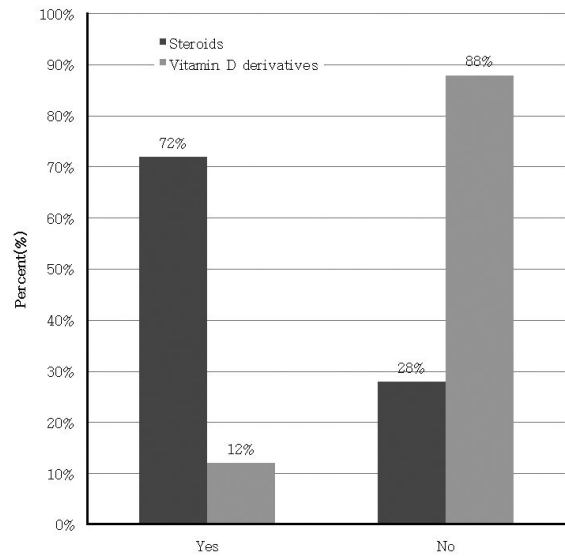


Fig. 7. Avoidance tendency for each type of medication because of side effect.

불어 생물학적 제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건선 환자에서 국소치료제는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으며 환자들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치료법이다. 실제로 전체 건선 환자의 70-80%에서 국소치료제만으로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효과적인 건선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순응도가 중요한 요소이며 국소치료제 선택 시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이 순응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² 본 설문 결과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제형은 로션과 크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포 시 불편감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스테로이드제제나 비타민 D유도체 모두 선호하는 이유로 도포감이 좋다는 선택한 순위가 두 번째였는데 이는 두 제제에 대한 직접적인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제형의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건선 국소치료제를 처방할 때 고려 요소로서 약물의 치료효과,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치료 제형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기존의 제형 이외에 침투력이 좋고, 도포 부위에 잔류 시간이 짧아 환자의 만족감을 높인 foam과 같은 새로운 제형이 개발되고 있다.³

스테로이드제제는 약물의 강도에 따라 여러 가지(Class I-VII)로 나뉘므로 선택의 폭이 넓고 효과가 나타

나기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다.²

비타민 D유도체는 표피증식 억제, 분화유도, 항염증효과가 있어 건선의 국소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하루 두 번씩 사용하고, 최대 효과는 6-8주 후에 나타난다.

본 설문 결과에서 비타민 D유도체를 싫어한다고 답한 군에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스테로이드제제를 선호 제제로 선택한 군에서는 그 이유로 빠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역시 이러한 두 제제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타민 D유도체가 건선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88.2%, 스테로이드제제가 건선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83.8%로 건선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제제와 비타민 D유도체 모두 비슷한 정도로 건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Cunliffe 등⁴이 betemethasone-17-valerate 연구(0.1%)와 calcipotriol 연구의 임상 비교연구에서 치료 6주에 PASI 점수가 각각 58%, 52%의 감소를 나타내어, calcipotriol 연구가 bathmethasone 연구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스테로이드제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에는 팽창선, 피부 위축 및 혈관 확장과 같은 국소 부작용과 호르몬 불균형을 나타내는 전신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⁵ 일반적으로 피부 위축은 3-4주일 이상 사용할 때 발생하고, 대개 가역적인 반면 팽창선은 비가역적이다.

비타민 D유도체의 피부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홍반, 소양감, 작열감, 표피탈락, 피부염 등의 국소 자극 증상이 보고되어 왔다.⁴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치료를 해도 악화되지 않고 없어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된바 있다.⁶ 본 설문 결과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용 기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타민 D유도체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로 인하여 사용을 기피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12%였으며, 스테로이드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용을 기피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72%로 두 제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테로이드제제가 장기적으로 사용 하였을 때 비가역적인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총 7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414명의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선 국소치료제 선호도에 관한 설문지를 기초로, 한국인 건선 환자에서의 국소치료제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가장 선호하는 제제로 비타민 D유도체를 답한 경우가 257명(62%)로 가장 많았으며, 스테로이드제제를 답한 경우가 125명(30.2%)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D유도체를 선호 제제로 선택한 군에서 그 이유로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134명(52.1%), 스테로이드제제를 선호 제제로 선택한 군에서는 그 이유로 빠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63명(50.4%)로 가장 많았다.

비타민 D유도체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로 인하여 사용을 기피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12%였으며, 스테로이드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용을 기피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72%로 스테로이드제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았다.

본 설문 결과 스테로이드제제나 비타민 D유도체 모두 선호하는 이유로 도포감이 좋다는 선택한 순위가 두 번째였으며,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제형은 로션과 크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선 국소치료제를 처방할 때 고려 요소로서 치료 제형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Schön MP, Boehncke WH. Psoriasis. N Engl J Med 2005; 352:1889-1912
- Lebwohl M. A clinician's paradigm in the treatment of psoriasis. J Am Acad Dermatol 2005;53:S59-69
- Stein L. Clinical studies of a new vehicle formulation for topical corticosteroids in the treatment of psoriasis. J Am Acad Dermatol 2005;53:S39-49
- Cunliffe WJ, Berth-Jones J, Claudy A, Fairiss G, Goldin D, Gratton D, et al. Comparative study of calcipotriol (MC903) ointment and betamethasone 17-valerate in patients with psoriasis vulgaris. J Am Acad Dermatol 1992;26:736-743
- Youn JI. Psoriasis. 1st ed. Seoul: Korea Medical Book Publisher 1996:71-83
- Yoo JH, Koh WS, Youn JI. Calcipotriol(MC903) Ointment in the Treatment of Psoriasis. Korean J Dermatol 1994;32: 655-661